

## 어느 화가의 '따뜻한 나눔' 고향 미혼모 응원 1억 기부

판화작가 이민 작품 수익금 전액 전달

양림동 연작 99점 제작 판매  
“예술가 기부 확산 계기됐으면”



가입하며 기부금은 미혼모 시설팀 인에 복지원 등 3곳에 지정기탁될 예정이다. 아너스 회원 134명 중 문화예술인은 그가 유일하다.

화려한 색깔의 그의 작품은 회화처럼도, 판화처럼도 보인다. 거칠거칠한 판화의 매력을 살림과 동시에 기존 판화보다 색 표현이 자유로워 다채롭고 명징한 색감을 얻어낸 작품들이다. 전시작들은 판화와 서양화 기법을 결합한 것으로, 상표 등록까지 마친 ‘판타블로’ (Pan Tableau) 기법으로 제작됐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일본 다마 미술대학원에서 판화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일본에서 활동했다.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이중섭미술관 레지던시가 계기가 돼 제주와 경기도 안양

지난 2018년 12월, 26년만에 고향 광주에서 개인전을 갖게 된 작가는 마음이 설레었다. 전시회 장소는 남구청이 운영하는 양림미술관. 기존 작품을 거는 대신, 그는 조금은 ‘특별한’ 전시를 열고 싶었다. 전시가 결정된 후 그는 수차례 내려와 양림동 구석구석을 스케치했고, 양림동을 담은 신작 26점으로부터 전시회를 꾸렸다. 양림동 전시는 그의 그림 인생 뿐 아니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줬다.

이민 (58·사진) 판화 작가가 지역 미혼모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 지역에서 예술가가 거액을 기부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특히 동료 예술가들이나 문화 관련 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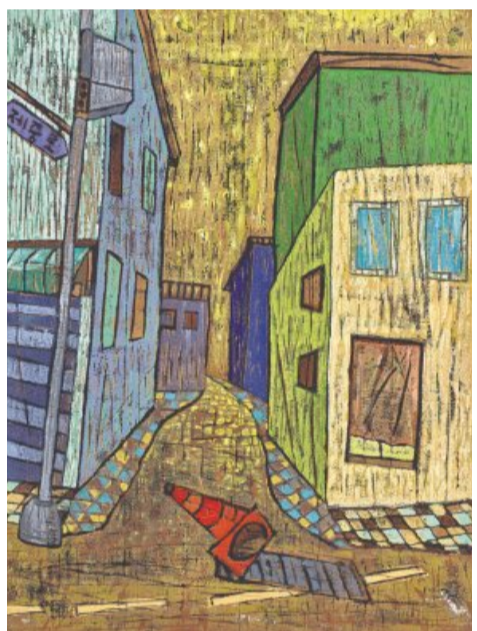
“개인전 후 갤러리 관계자에게 양림동을 그려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 업이고, 전시 기회를 준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 고마워하니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새삼스레 제가 광주를 위해 뭘 해볼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처음에는 양림동에 아뜰리에를 만들고, 나중에 이 공간을 무료로 기부하자 싶었다. 그러다 미혼모를 떠올렸다. 태어난 생명을 귀히 여겨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그들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결혼 26년 차지만 아이가 없는 그에게 아이를 키우는 이들은 모두 위대해 보였다.

그는 양림동 연작 99점을 제작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15일 광주은행 양림동 지점에서 통장을 만든 후 판매 수익금은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두 적립, 1억원을 모으자 마음 먹었다.

2021년 2월 99점을 모두 제작했고 지금까지 83점이 팔렸다. 가격대는 3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로 판매금액은 8600만원이다. 대형 작품을 제작하면 돈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었지만, 그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99명의 마음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싶었다. 구입자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고 자신을 통해 함께 사회에 환원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울, 제주를 비롯해 구미 울곡 고등학교 갤러리, 판현의 고성과 갤러리 등 여러 곳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판매 목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양림동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였다.

이 작가는 다음달 광주전남사회공동복지모금회 아너스 회원(1억원 이상 기부자)에 정식



이민 작 '별빛의 제중로'

을 오가며 작업 중이다.

이 작가는 오는 9월 양림동 그림 99점과 글을 담은 책 ‘뽕권마을, 이민 가다’ (스타북스)를 펴낼 예정이다. 양림동을 찾는 이들이 길라잡이처럼 활용하면 좋을 듯 싶어서다.

“예술가들의 삶은 녹록치 않지요. 힘든 면도 많습니니다. 이번 기부가 예술가들도 사회에 도네이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기부는 기업이나 전문직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예술인들도 사회의 한 파트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면 어떨까싶네요.”

이 작가는 “이민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나 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김미은 기자 mekim@

## 3년만에 딱 들어찬 경기장...“보고 싶었습니다”



‘붉은악마’ 응원단이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 경기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카드섹션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날 입장권 6만4000매가 매진돼 2019년 3월 26일 콜롬비아와의 국가대표 친선경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민주 “3월 임시국회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처리”

### 국힘 반대 국회 처리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 안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4월 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그 안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 힘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 거기서 전향적인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을 하며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법안 상정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도 불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획정이 끝난다”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법안 상정조차 거부해 교착상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풀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식의

기득권 정치를 그만하고,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희망을 품고 정치에 참여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때마다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광역의회 정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개특위 논의가 공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넘겼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새 원내대표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신(新)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홍근(53·서울 중랑을·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Passion [열정], Vision [비전],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계 전문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다. 2차 투표에서는 박광온 의원과 함께 상위 2위 안에 들었지만,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까지 갔다.

박 의원은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에 성공, 박광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1~3차 투표 모두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선 패배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



제로 전환됨에 따라 열린 이번 선거에서 박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내역 학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력도 당 내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광온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오르며 경합을 벌인 것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친문 세력의 표가 분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처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신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